

김용석 대광위원장, “하남교산지구 교통망 확충 박차”

-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장점검… 교통시설 차질 없는 구축 당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(이하 대광위) 김용석 위원장은 10월 24일 오후 ‘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’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.
 - 하남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동, 교산동 일대 약 685만^m² 면적(여의도 2.4배)에 총 3.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, AI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.
 - 서울방면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 송파~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, 객산터널~국도43호선 신설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여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.
- 김 위원장은 “하남교산지구는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3기 신도시의 하나로서,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족형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가 핵심 기반”이라며 교통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거듭 주문했다.
 - 또한, “‘29년 첫 입주자가 예정된 만큼, 대광위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”며, “관계기관도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혜진 (044-201-5045)
		담당자	사무관 임종채 (044-201-5050) 주무관 백세영 (044-201-5051)